

승대극회 제35회 가을 정기공연

코

Rhinoceros

벌

소



격려사



총장 김치선

가을의 발자욱 소리와 함께, 여름의 땀을 거두려는
작은 연극인들이 있습니다.
텅빈 공간을 채우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여러분과의 만남을 바라보며,
거듭된 진통을 움켜쥐고 이제 서고져 하는 큰
연극인들이 있습니다.

승실의 역사와 함께 자라온 승대극회가
제35회 가을 정기공연 작품으로 E. 이오네스코의
“코뿔소”를 가지고 절망적 상황에 부딪힌 인간의
절규를 통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작품이 전 승대극회원의 사랑과 사랑의
결실이라는 점에 깊은 의미를 주고 싶고,
이번 공연이 많은 이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쳐줄 것을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초대의 글



극회장 안상준

승실의 장구한 역사와 함께 대학문화의 창달이라는
뜻깊은 목적을 위해 달려온지 어언 21년!
그속에서 숨쉬며 내일은 오늘과는 달리
자랑스런 가슴으로 호흡하고자
그 숱한 시간을 몸부림 쳐왔습니다.

이제 감히 그 뜻을 이어받아
여러분 앞에 조심스러이 “코뿔소”라는 작품을
공연하오니 부디 저희와 함께 하시어
희망의 내일을 고민해 주십시오.
아울러 승대극회를 걱정해 주시는 선배님들 이하
모든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연을 위해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학교당국에 감사드립니다.

1. 작가적 면모

이오네스코(Eugene Ionesco, 1912-)는 1950년 이후 프랑스 연극을 지배해 온 「不條理演劇」의 주요한 劇作家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희곡의 철학적 기반은 모든 인간생활과 행위가 기본적으로 부조리하며 意思傳達의 수단으로서의 언어가 부조리하다는 前提를 통하여 성립되어 있다. 그의 處女作인 「대머리 女歌手」는 「反戯曲」이라는 타이틀이 붙여 졌는데 이 작품은 寫實主義 연극에 대한 홀륭한 패러디로서 언어가 고유의 의미와 내용을 잃어버리고 既成語로 死語化되는 비극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言語의 遊戲化에 의한 언어의 解體作業이 즉흥적인 해프닝 效果를 유지하면서 전개되어 도중에는 급속도로 언어의 반복작업이 진행되어져 틀에 박힌 형태의 언어가 얼마나 자동적으로 自己增殖을 꾀하고 있는가를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루마니아의 스라티나라는 小邑에서 태어나 2세 때에 프랑스인이었던 어머니를 따라 빠리로 移住하였다. 그리고 13세 때에 |다시 祖國 루마니아로 돌아가 17세 때에|부카레스트 大學에 입학하여 중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한편 詩作에 몰두하였다. 26세 때에는 루마니아 정부에서 지급한 프랑스 留學 장학금을 받아 다시 빠리에 돌아왔으나 제 2 차 대전의 突發로 문학적 활동을 중단하고 문학작품을 읽고 映畫를 보고 음악회와 美術展에 가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연극은 본래 싫어했던 관계로 극장에는 출입하지 않았는데 1948년 36세가 되어서 쓴 「대머리 女歌手」가 讀反의 격렬한 반응을 얻게 되자 흥미를 느끼고 劇作에 몰두하였다.

2. 반 연극

이오네스코는 자기의 古典主義, 말하자면 「연극의 메카니즘」을 그것의 순수한 상태에 있어서 재발견하고자 하는 의도를 폐이도의 笑劇이 지닌 이러한 加速化의 원리와 비교한다. 「예를 들면 『援業』에는 스토리는 없고 前進이 있을 뿐이다. 나는 어떤 정신상태, 감정, 상황, 불안을 점진적으로 압축시킴으로써

전진을 가져오고자 한다. 劇本은 희극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高潮해 가는 등장인물의 행동을 위한 간단한 구실에 불과하다. 극본은 단순히 베텁목에 불과하며 강렬화를 위한 구실인 것이다.」(原註8)『대머리 女歌手』에서 「코뿔소」에 이르기까지 행동의 이러한 凝縮化와 강렬화가 이오네스코의 희곡이 지닌 기본적인 형식원리이며, 그것의 형태이며 이것에 비하면 베께뜨와 아다모프(不條理演劇에서 이탈하기 까지의)의 그것은 순환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고 최초의 상황이랄까(또는 그와 상응하는) 前進의 행동이 無益하게 보이는 제로 지점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오네스코도 주장하고 있듯이 증대와 推積과 前進을 행동을 크라이막스로 이끌어 올리려는 이야기꾼의 노력과 혼동에서는 안된다. 이야기 為主의 희곡에서는 크ライ막스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사용된다. 이오네스코는 「그러한 최종장면이 하나의 前提로서 생각되어지는 導入場面의 논리적 해결을 구성하는 三段論法처럼 짜맞추어진 합리적인 연극」(原註9)을 싫어한다. 이오네스코는 잘 짜여진 연극과 이야기 為主의 연극을 거부한다.

3. 기술상의 업적

그의 목적을 가능케 하는 것 중에서 이오네스코가 보인 기술상의 발명능력은 실로 놀랄만한 것이다. 아래 보스에는 이오네스코의 處女作이며 또한 여러가지 면에서 가장 단순한 희곡인 「대머리 女歌手」 속에서 행동의 否定(예를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장면 등), 등장인물들이同一性을 상실하는 것, 무의미한 타이틀, 機械的인 놀림, 反復, 익조티시즘의 假裝, 거짓 論理, 繼時的인 연속의 폐지, 의혹의 增殖(예를 들면 모두가 보비 왓슨이라고 불리우는 一家), 기억의 상실, 멜로드라마의 놀림(「나는 살록 흄스야요」라고 下女는 말한다.), 동일한 일에 대한 정반대의 해석의 共存, 대화의 비연속성, 그리고 공연한 기대를 높여 주는 것에서부터 정해진 文句, 明白한 이치, 擬聲語, 超現實主義風의 名文句, 外國語의 무의미한 사용, 그리고 완전한 의미의 상실, 언어를 純粹母音으로까지 脱화시키는 것,

음의 패턴 등등의 순수한 형식적인 수법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게도 36가지에 이르는 「喜劇의 처방」(原註 16)을 헤아릴 수 있다.

이러한 리스트에는 이오네스코의 후기작품에서 상당한 숫자의 훌륭한 특징적인 수법을 부가시킬 수 있는데 — 무엇보다도 먼저 물체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과 물체의 增殖, 우리들의 눈 앞에서 자기들의 성질을 변화시켜 개개인의 등장인물이 동질성을 상실하는 것, 희곡 그것이 희곡 안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여러가지 鏡面效果, 관계가 없는 雜談의 흥수 속에서 개인이 고립되어 있음을 보이는 무대 밖에서의 대화의 사용, 생물과 무생물 간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 의미가 함축된 記述과 실제로 나타난 인물간의 모순(『결혼하는 딸』에 있어서 실제로 나타난 것은 입수염이 달린 神士인 젊은 딸이며 『指導者』에 있어서는 머리없는 天才임), 무대 위에서의 變身法(『코뿔소』와 『그림』에서 보여주는), 대다수의 他人들을 열거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희극적인 — 그리고 悲喜劇的인 — 발명의 자본을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이오네스코의 기본적 상황과 경험은 무엇인가? 이오네스코의 연극에는 두개의 기본적인 主題가 있으며 간혹 이 두개는 하나의 희곡 속에 공존하기도 한다. 이 안에서 작은 주제는 현대의 기계적인 부르죠아 문명의 猛威와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가치의 상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삶의 退化에 대한 항의이다. 이오네스코는 形而上學의 차원을 잃은 세계를 공격한다. 여기에서 인류는 신비의 느낌과 자기 자신의 실존에 직면하는 때의 경건한 畏敬의 느낌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다. 굳어버린 언어가 던지는 격렬한 嘲笑의 배후에서 삶에 대한 詩的 개념을 부흥하기 위한 항변이 행해진다.

4. 등장인물의 성격

이오네스코의 등장인물들은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 고립되고 고독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도 그들은 베께뜨와 아다모프의 작품에 나오는 浮浪人이나 내버려진 인간은 아니다. 그리고 어느 의미에서는 이것이 그들의 고립하다는 절망감과 부조리를 증대하는 것이지만 有機의 공동체의 一員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독하다. 그러나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작크』에

서 보듯이 가족이라는 것은 동일성을 향한 사회 압력의 代理者이며 『코뿔소』에서는 저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대니조차 이것에 헹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同胞意識이나 가족관계의 존재는 이오네스코의 세계가 지닌 절망감을 비추어 준다. 그의 태도를 완전히 悲觀的이라고 보는 것은 틀린 것이라. 그는 인간관계의 엄연한 진실에 인간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실존을 확실하고 완전히 살아있었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解放에의 길이기도 하다. 언젠가 이오네스코는 「(인간 조건의) 부조리성을 공격하는 것은 非不條理性의 가능성성을 설정하는 것인바…… 다른 어느 곳에서 찾으면 좋을까…… 禅仏教에서는 비직접적인 가르침, 始作과 啓示의 끈임없는 탐색만이 있었다. 비관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의무 따위로 인간을 비관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절망의 메시지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여기에서 빠져나갈 길을 자유롭게 발견하려고 해야만 하는 상황의 陳述이라고 나는 느끼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절망적인 상황의 陳述 바로 그것과 눈을 뜨고 그것과 관객이 같이 직면하도록 하는 능력은 카타르시스와 해방을 구성한다. 저 오이디푸스와 리어는 그들의 인간적 조건에서 오는 완전한 절망과 부조리성과 직면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그들의 비극은 해방의 경험인 것이다.

기획의 변



기획 안상준(기계2)

삶의 재창조라는 벅찬 욕심을 품은 죄로 인해 우리는
먼지구름을 만들며 질주하는 코뿔소의 환영과
싸워야 했습니다.
앞서 이 작업을 이루셨던 분들께서 이런 걸 일컬어
산모의 진통이라고 했던가요.
작은 공간에서 서로의 어깨가 맞닿았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직립보행을 하고 살 수 있었나 봅니다.
이제 어설푸게 두루고 있었던 허물을 벗어버리고 감히
여러분 앞에서 진한 몸부림을 치려 합니다.
진실을 갈구하는 숭대극회가 존속하게끔 도와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애정어린 꾸지람을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STAFF



무대감독
임태웅(산공4)



조연출
김미경(국문3)



무대장치
박경근(전자2)



무대미술
이준석(기계2)



조명
김인섭(기계2)



음향
최정화(무역1)



소품
김수진(사학1)



의상
황금실(국문2)



분장
이영구(산공3)



진행
최민구(화공2)



홍보1
김용희(회계2)



홍보2
김문규(회계1)

연출의 변



연출 송기범(경영3)

두 개의 자아가 있다.
늘 싸우는 것들이지만
처음 것은 시지프스의 돌이나, 프로메테우스의 간만큼이나
인간의 심정을 울려놓고야 마는
그래서 갈갈이 뜯기어, 한쪽의 과감한 파편이 되게하는 × 같음.

딴은 모순을 피하여
흙탕물 속에 머리를 쑤셔대면서도
나태로 인한 염통의 구멍으로 호흡하는 것이
둘중 나머지라고 하면 변명일테지만
죄 사함을 받고도
겹겹의 오물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부조리 속에 감추인 진실이라는 것은
기꺼이 보여져야 할 신(神)의 거칠은 뒤풀치 같은 것이기에
땀에 절은 육체와 갈급한 정신의 좁은 틈속에서도
반사되어 오는 인간의 정확한 목소리는
정녕 어두움……
그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대지를 닮았다.

CAST



장·소방수
최우정(수학2)



보따르·논리학자
안선후(섬유2)



데이지
왕동미(사사2)



베랑제
김장우(법학1)



빠빠옹·노신사
천승범(화공1)



튀다르·식품상 주인
권형진(무역1)



비프부인·식품상 안주인
김현순(독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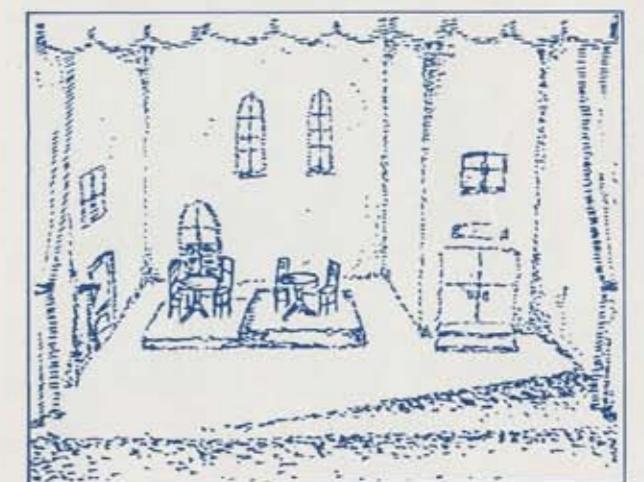
까페 주인
박준희(사사1)



까페 웨이츄리스
송미경(독문1)



주부
이경희(사학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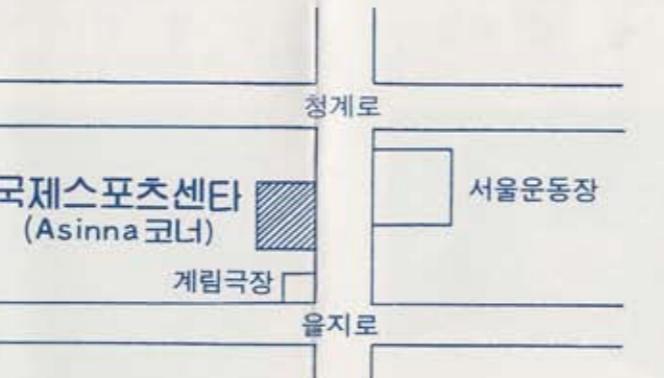
세계적 유명 브랜드

스포츠웨어 및 ACTIVE WEAR



원창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승렬



ASINNA CORNER : 266-7160
주 문 상 담 : 633-5101~4

소주 칵테일의 원조

CAFÉ

도시의 사냥꾼

■ 승전대

TEL. 812-6789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학사주점

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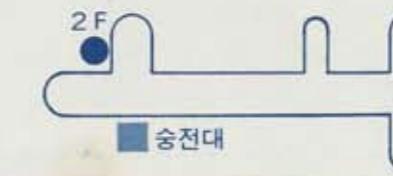
■ 승전대

옛촌

TEL. 813-6235

정통 중국요리 전문점(CHINESE RESTAURANT)

연래춘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분을 맞읍니다.

승전대학교 앞
TEL. 812-9108

학숙

깨끗하고 면학분위기가 충만한
하숙집.
참신한 당신의 하숙을 원합니다.



주인-이자은
TEL. 829-1292

승전대학교 지정 안경원

승전안경원



귀하의
무관심이
눈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TEL. 812-5666

중화요리

청풍원



2F 신 속 배 달
연회석완비
TEL. 814-1276



토탈디자인에이전시 티엔티
기획·디자인·인쇄
종합광고대행·카다록·포스터·각종인쇄물 제작
스카라극장옆 수도빌딩 601호
PHONE. 274/8462

공연연보

회	연 講	作 品 名	演 出	회	연 講	作 品 名	演 出	
	1921년 6 : 13	연홍회 소인극 "칠세영옹 나풀레옹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탐"		18	1977년 10 : 10, 11, 12, 13	"EQUUS" 피터·쉐퍼作	김영덕	
	1923년 7 : 7, 21	천원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 후" "기계인간" 엘리엇년회 주관		19	1978년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作	김영덕	
	1923년 7 : 28, 29	"소인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20	1978년 10 : 24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쉐퍼作	김영덕	
1	1965년 11 :	"폐궁으로 돌아오다" 황영석作 이반기희	전진호	4	1979년 3 : 29, 30	"셋" 이강백作 (신입생 환영)	정재호	
2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21	1979년 6 : 18, 19	"한강 2979" 김영덕作	이병국	
3	1969년 10 : 10	"의자들" 이오네스코作	이태주	22	1979년 9 : 29, 10 : 2	"초분" 오태석作	황정순	
4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23	1980년 11 : 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플라크作	박양권	
5	1970년 5 : 15	"聖者의 생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신입생 환영)	오세환	
6	1970년 10 : 28, 29	"勝負의終末" 샤무엘·베케트作	김양기	24	1981년 6 : 12, 13	"노부인의 방문" F. 뒤렌마트作	황정순	
7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전날목 삼화" 윤병조作 "담배해독에 대해서" 안본·체홉作 "황금단지" (로마극) 푸라우터스작 "고도를 기다리며" 샤유엘·베케트作	정종화 주정서 한영재 유근배 차현재	25	1981년 11 : 12, 13, 14	"달맞이 꽃" 김병종作	황정순	
8	1971년 11 : 4, 5, 11	"저격병의 그림자" 산·오케이시作	차현재	6	1982년 3 : 24, 25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락作 (신입생 환영)	이용섭	
9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펀터作	한영재	26	1982년 6 : 12, 13	"까리글라" A. 가워作	지숙	
10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뒤렌마트作	고봉인	27	1982년 10 : 7, 8	"쉐도우 박스" M. 크리스토퍼作	황정순	
11	1973년 10 : 25, 26, 27	"방" H. 펀터作 "기도" (소극장) F. 아라벨작	차현재	7	1983년 4 : 16, 17	"블랙코메디" 피터쉐퍼作 (신입생 환영)	홍여서	
12	1974년 5 : 25, 28, 30	"성의의 사람들" (전5막) A. 가워作	정종화	28	1983년 6 : 20, 21	"미시시피씨의 결혼" F. 뒤렌마트作	김영덕	
1	1975년 3 : 10, 11, 12	"악마와 품" W. Arving作 (신입생 환영)	김홍수	29	1983년 10 : 7, 8	"트레버" John Bowen作	오정열	
13	1975년 6 : 9, 10, 12, 13	"싸울터의 산책" "도스또예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안홍순	30	1984년 3 : 8, 9	"개인의 소공간" N. Holand作 (신입생 환영)	김인보	
14	1975년 10 : 29, 30, 31	"비디만과 방화범" Max Frisch作	안홍순	31	1984년 5 : 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作	오세환	
2	1976년 10 : 29,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백作 (신입생 환영)	김득남	32	1984년 10 : 11, 12, 13	"변천요" John Stoltenberg作	이용섭	
15	1976년 6 : 1, 2, 3	"인터뷰" 장·클로드·반·이델리作	김득남	33	1985년 5 : 9, 10, 11	"빈민굴" Maxim Gorky	이용섭	
16	1976년 10 : 25, 26, 27, 28	"뱀" 장·클로드·반·이델리作	김영덕	9	1985년 7 : 20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신입생 환영)	하승민	
3	1977년 3 : 16, 17, 18	"출발" 윤대성作 (신입생 환영)	안홍순	34	1985년 11 : 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노·파레스키作	송기범	
17	1977년 6 : 15, 16, 17, 18	"EQUUS" 피터·쉐퍼作	김영덕	10	1986년 3 : 17, 18, 19	"인형의 집" 헨리·임센作	김정은 위성선	
					34	1986년 6 : 4, 5, 6	"에쿠우스" "EQUUS" 피터·쉐퍼作	하승민